

제목	국문	종합검진센터의 위장조영술 및 위내시경 검사의 민감도에 관한 연구			
	영문	Sensitivity of X-ray and gastroendoscopy for mass screening of gastric cancer in health centers			
저자 및 소속	국문	이순영, 이원철 ¹ , 구정완 ¹ , 황인영 ¹ , 배재익 ² , 김훈교 ³ 아주대 예방의학교실,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¹ , 동국대 가정의학과 ² , 카톨릭의대 내과학교실 ³			
	영문	Soon Young Lee, Won Chul Lee ¹ , Jung Wan Koo ¹ , In Young Hwang ¹ , Jae Il Bae ² , Hoon-Kyo Kim ³ <i>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, School of Medicine, Ajou University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Catholic University of Korea¹,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Dongguk University²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Catholic University of Korea³</i>			
분야	역학 [암]	발표자	이순영 [일반회원]	발표형식	구연
진행상황	연구중 → 완료예정시기 : 2001년 11월 1일				
<p>1. 목적</p> <p>위암으로 인한 사망은 과거 30년간 점차로 감소되고는 있으나 1999년 암사망원인 1위이고 중앙암등록통계의 남녀 각각 24.4%, 16.4%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이 아닐 수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0대 이상의 위암검진율은 약 15%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. 따라서 국내 위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. 본 연구에서는 위암의 조기검진 권고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현재 조기검진을 위하여 일부 종합검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장조영술 및 위내시경 검사의 민감도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</p> <p>2. 방법</p> <p>1) 연구대상자: 일부 종합검진센터에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사이에 위암 위장촬영술 또는 위내시경을 받은 대상자 각각 76,121명, 11,074명이다.</p> <p>2) 자료수집: 서울시 종합검진센터의 위장조영술 및 위내시경 검진 파일(1994-1996년 또는 1995-1996)을 이용하여 위암검진 결과 양성여부를 파악하고 서울시 위암환자 등록 파일(1995-1997년 또는 1996-1997)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등으로 데이터를 병합하여 대상자들이 검진실시 1년이내 암진단 여부를 확인하였다.</p> <p>3) 분석 : 검진결과 양성이고 12개월내 암등록에 등록된 경우(진양성), 검진결과 음성이고 12개월내 암등록에 등록된 경우(위음성)을 파악하여 위장조영술 및 위내시경의 민감도를 각각 산출하였다.</p> <p>3. 결과</p> <p>대상 검진센터의 위암검진 양성율은 위장조영술 및 위내시경 천명당 각각 2.9(범위 0.6-4.1), 10.7(8.7-11.6)이었다. 위장조영술을 받은 76,121명중 서울시 암등록에 등록된 환자는 37명으로 평균 발생율이 48.6(10만명당)이었으며 위내시경을 받은 11,074명 중 환자는 25명으로 평균 발생률은 225.8(10만명당)이었다. 위장조영술의 민감도는 1994년 14.3%, 1995년 57.1%, 1996년 44.4%로 평균 민감도는 40.9%이었으며 위내시경은 1995년 91.7%, 1996년 92.3%로 평균 92.0%의 민감도를 보였다. 위장조영술의 성별 연령별 민감도는 여성의 민감도(55.6%)가 남자(35.7%)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고,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7%, 60대 이상은 60%의 민감도를 보였다. 위내시경은 남자의 민감도(95.0%)가 여자(80.0%)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고,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5.7% 60대 이상은 100%이었다.</p>					

4. 고찰

본 연구에서는 위암 조기검진을 위하여 종합검진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암 검진방법의 민감도의 정확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. 파일의 병합과정에서 양성자와 진단자가 ID의 문제로 서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주민번호, 생년월일 및 성명등으로 재차 확인하였으며, 검사결과 양성자 음성으로 오인되었을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병원별 양성자 판정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. 본 연구의 위내시경 검사자가 위암발생률이 높은 것은 위내시경 검사자가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. 일반적으로 종합검진시 80%이상인 본인이 검사방법을 결정하며 이들의 약 2/3은 편하다는 이유로 위장조영술을 시행하고 있다. 국내 위장조영술의 민감도에 대한 한 연구에서 민감도를 60%(최영진 등, 1987)로 보고한 바 있으며, 일본에서는 민감도를 80%이상으로 보고하였다(Iwai 등, 1981; Sachio 등, 1984). 본 연구는 일부 종합병원 검진센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,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, 위내시경의 민감도는 90%이상인 반면 위장조영술의 민감도가 50%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것을 감안할 때 특히 위장조영술의 위암조기 검진을 위한 기술적 환경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